믿음도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롬3:21~31)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도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도 또 하나의 행위일 뿐 아닌가.
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과연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믿음도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다 행위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는 행위에요.
꼭 몸을 움직여야만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행위 아닙니까?
입으로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게 다 행위의 일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열심히 교회생활 합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랍고 놀라운 은총적 선언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가 계속해 나가는데 우선, 믿음과 행위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의미 안에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정말 잘 이해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차려 놓은 놀라운 밥상, 그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 놓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행위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언어 속에서의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는 그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에도 그런 의미가 든 문장이 있습니다마는, 율법을 제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율법은 핸드폰과 같은 겁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은 선악과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파파보이로의 귀환을 뜻하는 겁니다.
왜 핸드폰입니까?
율법이라는 것, 열 개의 십계명만을 놓고 생각해도,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견과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안 들어 하시는 뚜렷한 취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화 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위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듣다보면 너무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안 들어 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핸드폰을 치는 겁니다.
마치 파파보이가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아빠에게 또 마마보이가 엄마에게 전화하듯이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주는 의미이고 간단한 얘기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우리의 존재의 구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겨 먹기를 도저히 하나님의 파파보이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파보이로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행동만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아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려 하신 것이, '우리의 존재의 구조자체가 죄악 된 구조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존재의 구조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까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이패스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몸이 접하고 있는 상황과 몸이 만나는 사람과 몸이 대하는 사물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 파파보이로서 지음 받아서 에덴동산에서 살 때의 모습은, 마음이 있고 몸이 있으면,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몸에 달라붙어서 아!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을 내게 넣어 주시면, 그게 나의 판단이 되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존재의 구조,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쳐서 몸에 가 달라붙어있는 상태의 구조 안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 참 마음에 들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단 하나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 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먼저 마음이 몸을 만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올인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제사의 의미가 들어있고, 화목제사의 의미가 들어있고, 번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의 의미가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올인원 (All in one)
속죄제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통하여 구속하셨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면서 몸에 붙어 버렸습니다.
이 몸에 붙으면서 몸으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일이 생깁니다.
몸에 달라 붙어있는 마음이 달라 붙어버립니다.
여기서 마음에 더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청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놓여 져야 될 것이 놓여 질 자리에 놓이는 것이 청결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깨끗한 밥이라고, 목욕탕 바닥에 떨어지면, 목욕탕 바닥도 깨끗하고 밥도 깨끗하지만, 더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 오셔서 자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들어왔습니다, 애국한답시고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내 몸에 대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이 들어왔습니다, 승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놓여 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식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자식이 놓여 질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에 놓여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더러워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죄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럼 화목제는, 하나님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살면

서, 하나님과 등지고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사업이 안돼서 우울하다 생각하고, 자식문제 때문에 우울하다 생각하고, 건강 때문에 우울하다 생각하고, 일이 안돼서 우울하다 생각하잖아요? 다~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모~든 우울함과 불행의 원인이, 행복과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등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는 제사라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잠재우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독생자가 죽으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되시는 관계로 돌아오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독생자가 죽으시는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예기입니,. 이게 화목제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 속죄제의 의미와 화목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번제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제사를 드릴 때의 의미.
번제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이 불에 타 죽습니다, 각을 떠서 불에 타 죽습니다.
소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럴 때 번제단 옆에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번제가 번제로서 성립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번제적인 의미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번제를 드리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내가 죽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애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과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행위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연인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 행위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행위는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슬쩍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가 달라붙었습니다, 육체에 달라붙었어요.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몸에 붙어 있는 마음이 곧바로 판단합니다.
‘아~ 이건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자금을 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몸에 붙어 있는 이 존재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채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의 구조자체가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입니다.
내 몸이 마음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몸이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거,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절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알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믿어요, 바르게 알아야.
교인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행위와 구분 되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어떤 점에서 구분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행위와 믿음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은총적인 의미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파괴에요, 파괴.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쳐서 몸에 가 달라붙어 있는 마음과 몸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존재의 구조를 파괴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존재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존재의 구조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이 존재의 구조가,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몸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이 상태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존재의 구조로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존재의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 존재의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지요.

행위는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과 몸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판단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하면, 이 행위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구조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이 구조로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것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몸에 가 달라붙어 있는 이 구조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번제적 의미가 믿음인데, 그 번제적인 의미로 내가 죽었다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속죄제와 화목제의 은총적 의미가 내 안에 주어집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 보신 적이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돈이 산처럼 쌓인 앞에 놓여 졌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로또당첨 됐을 때 어떻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형통할 때 그 형통한 사실 앞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우리 자식의 형통을 백 번 경험하는 거 쌓아놔도 안 되고,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비교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되는 순간, 돈을 보는 순간과 자식의 형통을 보는 순간과 내 일의 형통을 보는 순간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분을,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속죄제요 화목제에 들어있는 은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자연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이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믿음이고, 행위는 뭡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나도 모른 채 묵과한 채, 이 구조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구조에 근거돼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은 주어지지 않고, 행복은 주어지지 않고, 만족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놀랍고 놀라운 선언,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 온전히 행위와 믿음을 구분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